

미국, 환경친화적인 건축자재 유통을 위한 라벨 프로그램 발표

<https://www.epa.gov/newsreleases/biden-harris-administration-announces-label-program-bolster-us-manufacturing-cleaner>
<https://www.epa.gov/greenerproducts/label-program-low-embodied-carbon-construction-materials>
<https://www.epa.gov/newsreleases/biden-harris-administration-announces-nearly-160-million-grants-support-clean-us>

미국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이 환경적이고 기후친화적인 건축자재 제품을 찾고 구입할 수 있도록 돕는 라벨 프로그램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에 따른 것으로, 해당 법은 건축 자재로 인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EPA의 노력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PA에 따르면 건축자재와 관련해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이 연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5% 이상을 차지한다.

라벨 프로그램을 통해 구매자들은 내재 탄소(embodied carbon)가 적은 건축자재를 식별할 수 있게 된다. 먼저 원료 추출·운송·제조 같은 생산 단계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자재인 아스팔트, 콘크리트, 유리, 철강 제품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이들은 미국 정부 기관이 연방 기금으로 구매하는 재료 중 대부분을 차지한다. 제조 위치와 상관없이 라벨을 부여받을 수 있지만, EPA는 북미(North America) PCR(Product Category Rules)을 바탕으로 환경성적표지(Environmental Product Declarations: EPD)를 작성한 제품일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설명하였다. 라벨을 획득한 자재에 대해서는 공개된 레지스트리에 등록하여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PA는 향후 모든 건축자재에 대해 기준을 세워 프로그램에 포함할 계획이며, 시장 변화를 감지하며 구매자가 지속가능성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현재의 프로그램 또한 주기적으로 검토·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건축자재의 내재 탄소 계산 등 데이터의 표준화와 개선 ▲EPD 및 선도기업 사례,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적절한 내재 탄소 기준 결정 ▲건축자재 라벨 부여의 단계를 거쳐 프로그램을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라벨 프로그램 실행 3단계

출처: EPA. (2024). Implementation Approach for the U.S. EPA Label Program for Low Embodied Carbon Construction Materials https://www.epa.gov/system/files/documents/2024-08/lpa_final_8-6-24.pdf(검색일: 2024.9.3.)